

녹우당서 공재를 상상하다



박방영 작 '공재를 상상하다'

행촌미술관, 녹우당서 10월 3일까지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공재' 전

윤석남·김익·김현철 등 18명 참여

해남서 준비한 작품 39점 선봬

300년 시공 초월 예술적 공감 시도

윤두서 '자화상' 진본 특별전시도

해남 녹우당에 보관된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은 우리나라 자화상 가운데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화폭을 가득 채운 얼굴, 딱 다문 입술, 부릅 뜬 눈, 시방으로 뻗은 수염은 쉽게 잊히지 않는 강한 인상을 준다. 공재 윤두서(1668~1715)가 4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5년 전 완성한 이 작품은 현재까지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후대 예술가들에게 공재란 어떤 존재일까. 녹우당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공재와 300년 시공을 초월한 예술적 교감을 시도한다.

행촌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국) 행촌미술관이 '2016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공재'를 녹우당에서 공재를 상상하다'(Gongjae, Remagined) 전을 10월3일까지 녹우당 종현각에서 연다. 전시 기간 윤선도 유물전시관에서는 공재 자화상 진본과 풍속화를 특별전시한다.

녹우당에는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10년 이후 줄곧 비워져 있던 종현각을 미술관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재의 흔이 서려있는 장소에서 전시를 한다는 데 의미를 더했다.

전시에는 김기라·김익·김우성·김은숙·김현철·박방영·방정아·서용선·성태진·신재돈·윤석남·이종구·이이남·이인·정복수·조종성·하성흡·한홍수 등 작가 18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해남을 답사하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년간 준비한 작품 39점을 선보이며 각자 방식으로 공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난 20년 이상 간송미술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조선시대 초상화와 진경산수 채색화 기법을 연구한 김현철 작가는 공재 초상화를 전통 방식으로 새롭게 제작했다. 작품 '2016 공재 윤두서초상화'는 훼손되지 않는 원본 모습을 상상해 충실히 재현했다. 두건, 도포 등을 그려넣었다.

녹우당을 방문했던 방정아 작가는 어느날 종부의 한숨 소리를 듣는다. 1년이면 수십차례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보였다. 작품 '당번 언뜻-녹우당 종부'는 이제의 말라버린 언뜻과 묵묵히 녹우당을 지키고 있는 종부를 동일시했다.

여든을 바라보는 윤석남 작가는 한지에 먹으로 그린 자화상을 선보인다. 수십년간 연필, 색연필, 드로잉용 종이를 사용했던 그는 처음으로 이번 전시에서 한국화를 시도했다. 작가는 몇 년 전 공재 자화상 진본을 보고 큰



신재돈 작 '연대'

충격받았다. 그동안의 작업이 부끄러웠다. 윤두서의 고장에서 열리는 전시인 만큼 자화상을 출품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본다.

한국목판화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익 작가는 녹우당에서 보길도까지 남도길 300리를 10m 목판화 '남도풍색'에 담았다. 작가는 작업을 위해 2014년부터 자전거와 도보로 직접 답사했다. 작품은 작가 발길에 따라 녹우당에서 두륜산 대흥사로, 금매동유적을 지나 달마산을 넘어 땅 끝으로 이어지며 파노라마형식으로 전개된다. 또 강진 월출산 자락 백운동벌에서 시작으로 백련사, 다산초당, 보길도까지 다산의 자취를 따라가는 12점 연작, 명량대첩을 새긴 작품을 전시한다.

1976년에 태어난 성태진 작가는 같은해 만들어진 만화 '태권V'를 패러디해 공재에게 청춘에 대해 묻는 '청춘'을 작업했다. 이외에도 신재돈·성태진·김은숙·박방영 작가는 공재 자화상과 본인 자화상을 함께 그렸다. 이종구·정복수·김우성 작가는 해남 평범한 사람을 소재로 삼아 공재가 그린 풍속화를 되새긴다.

전시를 기획한 이승미 관장은 "검재 정성이나 단원 김홍도, 공재와 동시대를 살았던 렘브란트 등은 미술관이 만들어져 현재에도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공재가 태어나 살던 녹우당에도 미술관이 만들어져 남도 르네상스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1-530-828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출신 박현수 작가 '전혁림 미술상'

"수상작 'circe-BW' 대상의 본질 꿰뚫어"

광주 출신으로 빛과 색의 근본을 탐구하는 추상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박현수(50·사진) 작가가 '제2회 전혁림 미술상'(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전혁림 미술상은 경남 통영 출신 전혁림(1915~2010) 화백의 숭고한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30~50대 서양화가 대상으로 하는 전혁림 미술상은 특히 국내 미술상이 외면해온 추상 미술에 주목했다. 심사위원회는 "전혁림 작가의 회화 경향이 비구상 혹은 반구상을 아우르는 추상인 만큼 장기적으로 한국 추상미술의 맥을 잇는 작가를 집중 육성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조대부고를 졸업한 박 작가는 중앙대 회화학과 및 동대학원 회화과와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개인전 15회와 서울을 비롯해 미국 등에서 열린 주요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지난 2009년에는 광주미술상도 수상했다.

박 작가의 수상작 'circe-BW(70.5x50.3 cm, 2012)'는 우주 생성의 신비스러운 기운이 강하게 회오리치는 작품이다. 작가는 화면에 수백 개의 정밀한 작은 조각의 형태를 밀집시키며 흘러가듯, 발걸 기법 등을 교차시킨다.



박현수 작 'circe-BW'

심사위원회는 "박현수 작가의 작품에 대해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모습을 그리는 등 대상의 본질을 꿰뚫었다"며 "심사위원 6명이 각 3명의 작가를 추천한 끝에 박현수 작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현수 작가는 "수상을 한다는 것은 긍정의 에너지다. 앞으로 더 좋은 작업과 작품이 나오도록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지난 21일 전혁림 탄생 100주년 예술제 개막 행사에서 열렸으며 수상기념전은 내년 제3회 전혁림예술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그림책으로 떠나는 다문화 기행' 강좌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그림책으로 떠나는 다문화 기행' 강좌가 오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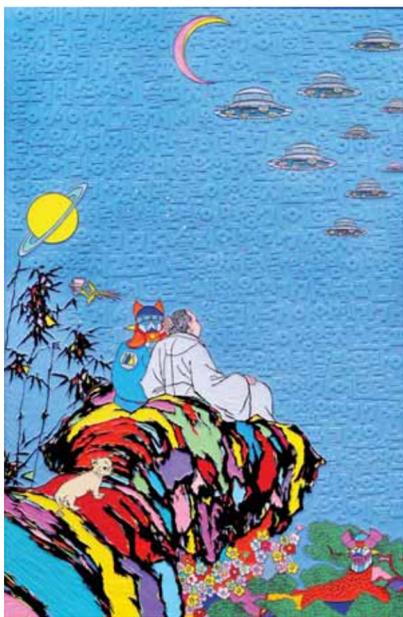
6일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축제와 놀이'를 주제로 일본 동화책 '오늘은 무슨 날?'을 읽어보고, 일본의 전통놀이 체험 및 일본 전통놀이 기구 캔다미를 만든다.

13일은 '가장 많은 다문화를 이루고 있는 베트남 전통과 음식'을 주제로 진행된다. 베트남 동화책 '베트남 설날 장

대 이야기'를 읽은 뒤 베트남의 전통의상 아오자이를 읽어보고 베트남 전통놀이 기구 논라 모빌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 20일은 '가장 큰 나라 러시아의 예술과 인물'을 주제로 러시아 동화책 '열려라 러시아, 열려라 마트로시카'를 읽어보고, 러시아 음악을 함께 듣는다. 이어 러시아 전통인형 마트로시카를 활용한 장식품 가랜드를 만들어볼 예정이다. 062-670-79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성태진 작 '청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400여점 전시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8월호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팔딱이는 문화, 여기는 전통시장

1913 송정역시장

이 특집
팔딱이는 문화
여기는 전통시장

광주의 전통시장 살린 문화 앤들핀
재단장 후 뜨거운 사랑받는 1913송정역시장
문화꽃으로 입소문난 화제의 전통시장들

노출의 꿈의 여행
개성 만점의 삼색 도시를
프랑스 론알프스

전남의 미래, 다도해를 가다⑦-진도
보물섬 진도와 아름다운 이웃 섬들

남도 문화로
자연의 풍류, 문화의 향기 그윽한 죽림
떡갈비 분고장, 갖가지 별미 넘치네
정성 기운 한가득, 대나무 축제

문화 화제
작가 김승욱의 특별한 전시
화폭에 스며든
'무진기행'의 감성

문학 기행
운동주의 숨결을 따라
일본 도시사대학에서
후쿠오카 형무소까지

여행이 만난 이 사람
무상임대로 집 내놔
정년 셰어하우스 만든 김현승
신인 1차 지명 받은
타이거즈 키즈 투수 유승철

여행 초대석
세상을 깨우는
'꿈꾸는 유목민' 김수영
"난 어딜 향하고 있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남도의 장인들
대나무 위에 불로 새긴 기쁨
낙죽장도장 한상봉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1)
스탈린 시대 음악의 별들
프로코피예프와 소스타코비치

작가 최정훈의 그림과 함께한 음악여행-1
영국이 아름다운 건
음악이 있기 때문인가?

문화 풍경
문화를 갈망하는 당신 오세요
1930양림살롱

전시 화제
2016광주
아트페어
아떤 모습
보여줄까?

전북 문화예술 공간을 찾아서③
전통과 농악의 감성놀이만 이끄는
고창농악보존회

한창호의 시시어 필자
우리 앨런 <이레서널 맨>

스타 데이트
"우울함 벗어 던질 수 있어 참나 캐리커"
tvN '싸우자 귀신아' 발발 귀신 연기, 김소현